

# 작은도매방

12월호 \* 크리스마스 특집



라운아파는 Good Friends of Asia다.

## What can we do?

Feeding 생활 계획표 \* ALS?(알아쓰?) 알다가도 모르겠네 \* Amazing Women, 그들을 파헤치다 @발록

## Acculturate, Enculturate!

필리핀에서 술이란? \* 우리 생애 가장 뜨거운 크리스마스

## We are TRULY living here!

We wish your Merry Christmas \* 파뤼 피플~! (Party People) \* 가족과 함께한 크리스마스 \* 濫故知新 (온고지신) - 옛 것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알다 \* 12월, 특별한 이들을 위한 특별한 생일 파티 \* 12월의 스케치북

# Calendar of December ☺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Feeding @Bagong Pook E/S Training Orientation @BALOC	2 ALS Class @San Ignacio BALOC Training & ALS mapping	3 English & Tagalog Class Karate	4 English & Tagalog Class Karate
5 ALS Class @San Ignacio BALOC	6 BALOC	7 ALS Class @San Ignacio BALOC	8 Feeding @Bagong Pook E/S BALOC	9 ALS Class @San Ignacio BALOC	10 English & Tagalog Class Karate	11 English & Tagalog Class Karate Birthday of ROMNICK
12 Training Graduation & ALS Orientation @BALOC	13 ALS Class @San Ignacio BALOC	14 ALS Class @San Ignacio	15 Feeding @Bagong Pook E/S ALS Class @BALOC	16 ALS Class @San Ignacio	17 Karate Christmas Caroling	18 Christmas Party @Karate class Go to Manila
19 Visit San Ignacio Welcoming Gwangju YMCA Discussion about 1000 <sup>th</sup> Wednesday Assembly	20 ALS Class @Baloc	21 Christmas Party @Frontline Ministry	22 Christmas Party @BALOC Birthday of DANIEL	23 Visit DSWD Christmas Caroling	24 Christmas Eve_Give Midnight Snack to Bagong Pook Children	25 Visit Kuya Philips' House Go to Batangas
26 Come back to San Pablo	27 18 <sup>th</sup> Birthday of SAMANTHA	28 Practice Dance for Coco fiesta Christmas Parth @YMCA Board of Directors Meeting	29 Visa extension @Manila	30 Jose Rizal Holiday	31 Last day of 2011 with Family! @San Lucas	





Daniel[다니엘]: 정동수.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푸근하면서도 타이트한 커티 벨트와 조리가 인상적인 산타클로스 활약했다. 단빵(다니엘 + 빵잇, sweet bread 아님). 12 월 생일을 기점으로 처음으로 소녀 팬들을 얻게 되어 이번 한 달 가슴 설렌 바 있다. 신년 소원이 있다면 올 한 해는 여자친구 꼭 잡지해주시길..

Albert[알버트]: 양승진. 똥바보(지나가 붙인 별명). 알빵(알버트 + 빵잇). 애창곡은 '나는 나비'와 '아름다운 구속'. 동네에서 노래방 기계로 부르고 있다고 착각할 만큼 우렁찬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경우가 잦음(샤워할 때 화장실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건들건들한 루돌프로 활약했다. 요즘 키어운 척 물이 오를 대로 올랐음.. 산파블로 하이애나(남은 음식을 모두 다 쓸어먹는다)



Honey[허~니]: 김가흔. 호빵('Ho~'ney + 빵잇). 포순이(필리핀 폴리스들의 마스코트). 바공 포옥 아이들로부터 열 여섯 살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참고로 다니엘은 40..야)

Sun[썬]: 이민선. 선빵(Sun + 빵잇 먼저 주먹 날림). 이번 달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움스(지난 달 인명 사진 참고^^) 어머니께 인사 드린 바 있음(민선이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Genie[지니]: 문진희. 12 월 한달 동안 리더를 맡았다. 똥멍청이(알버트가 붙인 별명). 필리핀에 사는 동안 붙어난 체중을 더 이상 늘리지 않기 위해 요새 새벽마다 마미 크리스티와 삼팔록 레이크 조깅에 한창이다. 짬빵(지니 + 빵잇).

월간 소식지 '작은 도마뱀'을 더 재미있게 읽기 위해 참고해야 할 것!!

\* 12 월의 따갈로그어 및 인명 사전 \*

Pagkain[빠까인]: 음식. 우리의 '가장 중요한 활동'의 재료. "Eating is the most important activity in RAONATTI!"  
By Mommy Kristy

Pasko[파스코]: 크리스마스. 필리핀의 가장 큰 명절로, 필리핀은 세계에서 가장 길게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나라야.

Mano po[마누 포]: 'God Bless You'의 의미로 웃어른의 손등을 야마에 대며 존경을 표하는 행동을 뜻하기도 한다.

Taon[타온]: Year. 우리 요즘 Manigong Bagong taon!(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야라는 새해 인사를 한다.

Ninong[니농]: God Father. 갓 마더는 Ninang[니낭]이며 카톨릭 국가인 필리핀에서는 가족만큼 굉장히 중요한 관계야.

Ako Naman[아코 나만]: 내 차례(My Turn!)라는 의미. 많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자주 하는 말

Kaarawan[카리완]: 생일. 소중한 사람들의 생일이 특히 많았던 한 달

Pare[빠레]: 사람들이 자신의 자식의 니동을 부를 때 쓰는 말. 사람들은 빠레와 가족 같은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까운 사이에 부르는 친근한 호칭으로도 쓰이게 되었다. 여자는 Mare[마레]. Albert는 농구친구들에게 Pare로 불린다.

Sari-sari[사리 사리]: 다양한 종류라는 뜻 Sari-sari store는 별게 다 있는 필리핀의 구멍가게

Halikal[할리카]: come 의 뜻. Halika dito는 '이리와'라는 뜻이다. 바탕와이들이 진희를 놀릴 때 진희가 하는 말

Walang anumang[왈랑 아누만]: 찬만요. Salamat po 에 대한 답례의 말로 쓰인다.

Pwede[뿌에데]: can 의 뜻. 무언가를 해도 되는 지 물을 때 자주 쓰인다. Hindi pwede 는 cannot 의 뜻. 저절로 어깨가 올라가지는 신기한 단어



Jek[젝]: Mommy Kristy 의 하나 밖에 없는 소중한 딸. 본명은 'Therese Jezzafei D. Sumague'지만 애칭인 잭으로 불린다. Lipa city 에서 기숙사생활을 하는 대학교 새내기. 학교가 멀리 있어 가끔은 우리와 떨어져 있지만 완전 소중한 친구. 16 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른스러워 Mommy 의 일을 자주 도와드리며 우리의 활동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한다. Mommy 와 애정표현으로 키스를 나누는 것을 보면 마음이 훈훈해진다.



Kuya Philip[쿠야 필립]: 건축 엔지니어인 필립은 YMCA 의 EX-Director 였으며 지금도 YMCA 와 라몬아피에 없어서는 안될 소금 같은 존재. 본명은 Felipe Valenzuela 이지만 애칭인 필립으로 불린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항상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사는 아름다운 청년. 꿈도 아름다워서 평생 1,000 개의 집을 짓는 것이 목표인데 항상 자신이 지은 집에 이름을 붙인다. 우리 라몬아피 5 명의 이름을 붙인 집을 지을 거라고 한다.



Ate Lota[아테 로타]: 아테 오츠는 그녀의 또 다른 이름. 졸리비와는 비교 불가한 스파게티 요리 솜씨를 자랑하는 그녀는 ALS 의 선생님이자 YMCA of San Pablo City 에 없어서 안 될 중요한 사람이다. 키여운 외모와 깜찍한 미소로 즐거움을 주는 그녀는 우리에게 비타민 같은 존재!



Tita Grace[티타 그레이스]: Mommy Kristy 의 둘도 없는 친구이자 도우미이자 오른팔. 아테 오츠와 마찬가지로 ALS 선생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해 주시며 특유의 요리솜씨로 이번 BALOC 프로젝트에서 트레이너로 맹활약 하셨다. 12 월 27 일 싸만다의 생일 준비로 더욱 바빴다. 싸만다는 그녀의 큰 딸로 YMCA 가 위치한 BRGY. VI-E 의 유스 চে어맨이자 Youth Director Sam 의 여자친구야.



Sensei John[센세 존]: 산 파블로 YMCA 의 보드멤버이자 YMCA 안에서 매주 가라데 클럽 (Samurai Karatedo club)을 운영하고 계신다. 씬이 한눈에 반할 정도로 훈훈한 외모와 능률한 풍채를 지니고 계신다. 매주 가라데 시간에는 그의 딸과 두 명의 아들이 함께 나와 그를 돕고 있다. 그의 딸과 아들 모두 미남 미녀로 우리 라몬아피 사이에서 Magandang Family(아름다운 가족)으로 불리고 있다.

# 라온아띠는 Good Friends of Asia다.

우리에게 이번 12월 한 달은 딱 삼십여 일의 시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1년을 인형하며, 그리고 다가오는 2012년에 인형하며 지난 해의 절반 그 이상을 차지한 라온아띠로서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했죠. 필리핀에서 만났던 무수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소개했었고, 라온아띠가 무엇이라는 물음에 '우리는 Good Friends of Asia 다!'라는 답변을 참 많기도 했습니다. 처음보다 이제 조금 더 알 것 같습니다. 아시아의 좋은 친구라는 라온아띠의 의미예요. 참 많은 사람들과 많은 상황들을 만나며 이곳에 익숙해지고 그들과 친구가 되는 과정 속에서.

특히 이번 달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진짜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필리핀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 명절인 크리스마스를 함께하며, 다른 어느 달보다도 친구들의 생일이 많았던 한 달을 보내며, 점점 무르익어가는 feeding 프로그램과 ALS learner들과의 시간을 보내며..

처음 필리핀에 도착해서 우리가 정말 아들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 때. 지금은 서로를 바라보는 미소만으로도 기분 좋은 사이가 되었고, 살아가며 생긴 수많은 스토리들과 별명들, 그리고 정겨운 어깨동무와 배 어루만지기 등등의 애정행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

우리가 맞닥뜨렸던 다양한 상황들과 도전들도 친구들과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기분 좋은 미소와 에너지로 힘을 북돋아 주고 뭐든 함께 했던 친구들 덕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는 것도 깨달았죠.

마지막 호인 이번 달을 담으며 마음이 려할 법도 하건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마음이 벅칩니다. 소중한 친구들이 생겼고, 우리 또한 그들의 소중한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Thank you for my friend. We are 'RaonAtti'!

A 군 왈: 솔직히, 얼마나, 그냥 우리가 Good Friends of Asia 라고 하는 건 얼마나 건방지냐. 그래도 Good Friends of San Pablo city 정도는 되는 거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는 있냐? 딱 여섯나리 합치면 뭐냐 캡틴 플래닛 (땅, 불, 바람, 물, 마음..)이 아니고, 진짜 Good Friends of Asia다. 그 정도로 쓸 수 있냐?

# What can we do?

Feeding 생활 계획표 \* ALS?(알아쓰?) 알다가도 모르겠네 \* Amazing Women, 그들을 파헤치다 @발록

## Feeding 생활 계획표

Written by Sun & Genie



### 아침 - 출바~알!



매주 목요일 아침 8 시 반, 우리는 Feeding 을 준비하기 위해 바공 포옥 초등학교로 향한다. 이때쯤이면 미리 가져다 놓은 음식 재료를 가지고 우리의 Feeding 을 도와 주시는 한 학생의 어머니께서 음식을 만들고 계신다. 우리는 매주 돌아가며 어머니를 도와 드리거나 Feeding 과 Activity 를 진행할 교실을 정리한다.

12 월 15 일 아침엔 산타가 출동했다. 올 해의 마지막 Feeding 을 맞아 아이들에게 더욱 더 특별한 아침을 선물해 주고 싶어서 동수는 산타가 되고 승건은 루돌프가 된 것이다. 아침엔 부지런히 수제 햄버거를 만들고(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었으니 수제 햄버거다) 밤새 포장했던 과자꾸러미를 챙겨 큰 바구니에 담아 학교로 향하는 길. 그 날 따라 어찌나 햇볕은 내리쬐는지 흰 콧수염은 자꾸만 동수 산타의 입으로 들어가 축축해진다.



## 오전 - Let's Play!



Feeding 후엔 아이들과 Activity 를 갖는다. 어느 날은 아이들과 함께 생활계획표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생활계획표를 통해 아이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우리의 예상과 달리 아이들에게는 이 동그라미 생활계획표가 익숙하지 않은 모양이다. 한 아이는 하루 일과를 채워 넣는 대신 동그라미 안을 알록달록 여러 가지 색깔로 채워 넣는다. 잠자는 시간과 노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이 전부인 생활계획표도 있다. 어느새 생활계획표는 아이들의 귀여운 소망을 담은 '희망계획표'로 탈바꿈한다. 아이들의 엉뚱하고 특특 튀는 아이디어는 저절로 우리를 미소 짓게 한다.



YMCA 에 와서 놓고 있는 바공 포육 어린이들이 벌써 꼬질꼬질 때가 깨버린 비즈(구슬) 팔찌를 자랑스럽게 우리에게 보여준다. 아이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한국에서 '동아 사이언스'의 후원을 받아 준비해왔던 과학키트이다. 자외선을 받으면 구슬의 색깔이 바뀌는 이 팔찌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신기한 모양이다. 관심 없는 척 Activity 에 참여하지 않고 교실 밖으로 나가 놀던 몇몇의 아이들도 돌아와서는 자기들도 달라고 한다. 아이들이 이 팔찌를 얼마나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지 느낄 수 있어 흐뭇하다.

올해의 마지막 Feeding. 교실을 들어서자마자 너무나 좋아라 하는 아이들. 항상 이 시간이면 방금 전 아침을 먹고 온 우리들도 군침이 고이지만 오늘만은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 만으로도 너무 배가 부른다. 이 날의 Activity 는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아이들은 색연필과 가위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카드를 꾸민다. 아이들이 꾸민 카드 모두 예쁘다. 카드 장식을 마친 후, 아이들은 전해주고 싶은 소중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Activity 때마다 짓궂은 장난을 일삼아 하던 약동 어린이들도 건지한 얼굴로 편지를 쓰는 모습이 귀엽다. 프로그램이 끝나갈 때쯤 아이들이 수줍게 손에 카드를 쥐어주었다. 지니는 장난꾸러기 꼬마들에게서 가장 많은 카드를 받았다. 'From. 아떼 지니'라고 적힌 카드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항상 우리에게 맛있는 아침을 주어서 고마워요.  
그리고 행복을 줘서 고마워요. 메리 크리스마스!**

편지의 내용은 저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아이들에게서 공통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매주 Feeding 을 하고 나면 백뚱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이들의 메시지를 받은 건 처음이었다. 정말 내가 아이들의 소중한 친구가 되었구나를 느낀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다. 예쁜 것들. Magandang Pasko♥



## 오후 - Party!

오후 2 시, 아이들과 ALS 학생들을 위해 YMCA 에서 작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기로 한다. 심플하지만 어린이들도 청년들도 함께 웃고 즐겼던 크리스마스 파티! 새해에도 모두 좋은 일 가득하길♥♥

## 저녁- 캐롤링 그리고 미드나잇 스낵



크리스마스 3 주 전부터 이 시간 즈음이면 문밖으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필리핀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누구나 캐롤링을 한다. 특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누구보다 신난 아이들은 집집마다 때묻지 않은 노래와 크리스마스 인사를 건넨다. 아이들은 “쿠야(Kuya) 알버트! 쿠야(Kuya) 다니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나올 때까지 목청 높여 노래를 부른다. 어떤 아이는 집에서 주방기구를 가져와 박자를 맞춰가며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대문은 활짝 열리고 아이들은 손에 쥐어진 작은 사탕이나 동전 몇 개에 행복해진다. 어느 날, 동수는 동전이 없어 큰 돈(자고마치 20 페소!!)을 아이들에게 주었고, 그 후 찬동안 문밖으로 “쿠야 다니엘! 쿠야 다니엘!”을 외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매주 우리와 함께 활동을 하는 아이들의 집을 찾을 계획을 세웠다.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 자정에 가족들끼리 함께 먹는 간식(미드나잇 스낵, 필리핀의 전통)을 소박하게나마 전달하기 위해서다. 약 50 여명의 아이들의 집을 찾아 전해줘야 하는 상황. 처음엔 바랑가이 홀에 계신 분과 고학년 아이 한 명의 도움을 받아 길을 나섰다.

그러나 곧 한계에 부딪힌다. 열 몇 가구를 나누어주고 나서는 더 이상 아이들의 집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양손에 쥐어 들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혈길을 따라 걷기로 한 우리들.



“바공 포옥 망아 바타~!!!!!!!!!!!!!! 로이셀!!!!!!!!!!!!”

기차길을 오가며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자 거짓말처럼 아이들이 나타났다. 한 집을 들르면 아이가 한 명 늘고, 그렇게 약 열 명에서 바공 포옥 마을을 누볐다. 아이들은 아직 받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선물을 주어야 한다며 우리의 손을 잡고 친구의 집으로 이끌었다. 우리의 미드나잇 스낵 선물 배달은 해가 지고 깜깜해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집은 우리 집에서 20 분 정도를 기차길을 따라 걸어야 했다. 험난(?)하고 먼 여정이었지만, 우리는 마치 산타가 된 기분이었다. 한 명씩 우리의 손을 잡고 동행해수던 아이들은 아기 루돌프 같았다.

이 조그마한 선물로 아이들의 크리스마스가 조금이나마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 밤- 생각 나누기

올해의 마지막 Feeding 때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과자꾸러미 선물을 준비했다. 시장에 가서 캔디, 초콜릿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낵을 잔뜩 사왔다. 작은 선물 꾸러미 안에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접은 ‘색종이하트’를 집어 넣었다. 하트 안에 Merry Christmas! 라는 메시지를 적으며 행복해 할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Feeding 을 마치고 난 밤이면 우리는 어김없이 그날을 돌아보며 피드백을 하고, 그 다음주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눈다.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양한 활동들로 채우고 싶어 우리의 활동 프로그램은 몸을 움직이거나 음악, 미술 활동이 주가 된다. 처음엔 긴장도 하고, 아이들에게 전할 무언가의 완성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많이 여유로워졌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절로 웃음이 나고 즐겁다. 그렇게 매 주, 매 주 아이들에게 영양분을 주고 우리도 영양분을 받는다.

# ALS?(알아쓰?) 알다가도 모르겠네

Written by Genie & Sun

## 만국공용 땡땡이 (부제: 가끔 라베도~♪♪ 수업에 가기 싫겠지~♪)

오늘도 어김없이 산 이그나시오로 향하는 길. 트라이시클을 타고서 지나는 ULTIMART(쇼핑몰) 앞에서 우리 시선을 이끄는 심상찮은 얼굴을 발견했다. 앓 저것은 마크 앤서니~♪♪ 산 이그나시오의 학생 중 한 명이다. 어제 곧 수업을 시작할 시간인데 여기어..? 멋도 한껏 부린 것 같다. 야속한 그 얼굴은 멀어져만 가고 우리 파이널리 산 이그나시오에 도착했다. 어라.. 많이 없다. 학생들이 많이 없다. 성실하게 수업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몇 명의 여학생들에게 물으니 단체로 놀러 나갔단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높은 출석률과 열띤 수업 분위기를 자랑하던 클래스였는데.. 어쨌든 우리는 수업을 시작한다. 평소에 수학을 좋아하고 또 잘 하는 라베의 표정도 오늘따라 뽀루뽀하다.

유난히 허전하고 또 산만한 수업에 힘이 조금 빠질 뻔 했지만 어느새 또 함께 웃고 즐기고 있는 우리를 발견한다. 그래 생각해 보면 수업 한 두 번쯤 꼭 빠지고 싶을 때가 있지. 그 날 밤 피드백을 하며 승진이 갑작스레 개사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가끔 라베도~♪♪ 수업에 가기 싫겠지~♪' (한스밴드의 '오락실' 中) 모두가 빵 터졌다. 그렇게 웃으며 또 하루를 마무리한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도 학생들의 수가 아닌 그 날 참여한 학생들과 어떻게 더 일차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는지가 중요해졌다. 그렇기에 매 수업 시간은 참 즐겁고 뿌듯하다.

## 비바람은 몰아치고

철썩철썩. 산 이그나시오 수업을 하러 가는 길은 진흙탕이다. 트라이시클을 타고선 지프니로 갈아타고 흙 길을 걸어 들어가면 이제는 너무나 친숙한 당구대가 우리를 맞이한다. 변변한 칠판 하나도 없어 매 수업 때마다 우리는 YMCA 에 있는 화이트보드를 들고 이동한다. 당구대 위 지붕을 지지대 삼아, 그 끝에 철사를 달고 화이트보드를 매단다. 수업 내내 필기를 해야 해서 동수와 승진은 화이트보드의 양 쪽 끝을 잡고 있는 칠판 홀더(Chilpan Holder, 칠판을 들고 있는 사람을 창함)가 되었다. 이제 수업 좀 하나 싶었더니, 당구대 위에서 막 한 살 된 아이(존 라이언, 베이비시터 동수가 돌보는 아이, 11 월호 참고)가 걸음마 연습을 하기 시작한다.



아내 동수는 익숙한 솜씨로 배를 받침대 삼아 존 라이언을 품에 안는다. 이제 존 라이언의 엄마는 마음 놓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몰아쳐도 우리의 수업은 진행된다. 넉넉치 않은 의자가 훌쩍 젖어 있더라도 옆 친구 손수건을 빌려 한 번 쓱 닦고 있으면 그만이다. 들고 오는 길에 사라져버린 화이트보드의 한 쪽 나사가 없어도 칠판 홀더와 함께라면 문제될 게 없다. 어느새 우리도 그때 그때 주어지는 순간의 상황에 맞추어, 당황하거나 거리낌 없이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 같다.

사실 처음엔 이 장소가 임시로 수업을 할 곳이었다. 산 이그나시오에 있는 교외 한 부분을 빌려 수업을 할 예정이었으나, 그 곳도 꽤 멀어 학생들에게 교통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두 대의 당구대가 놓여 있는 곳에서, 한 곳은 동네 아저씨들과 청년들, 아이들이 당구를 치고 또 다른 한 곳에선 우리의 수업이 진행된다. 좁디 좁게 모여 앉아 불편할 법도 하지만 수업에 임하는 자세는 제법 진지하다. 개념을 설명하고 난 후 연습 문제를 내주면 잔뜩하게 앉아 문제를 푼다. 행여 지칠까 쉬는 시간을 줘도 그대로 있어서 문제를 풀기까지 하니 비바람이 무슨 문제랴 우린 신나게 공부한다.



## 아빠사 지각했다

오늘은 2011 년의 마지막 수학 수업이 있는 날이다. 필리핀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매우 길어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1 월 3 일까지가 방학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이 수업을 조금 더 특별하게 남기고 싶었다. 수업을 꽤 오래 쉬는 동안 내용을 잊지 않고 복습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까지의 개념 정리와 연습문제를 담은 작은 책 한 권을 만들었다. 한 땀 한 땀 고려하는 장인 정신으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그럴 듯한 표지도 만들어 프린트를 했다. 수업을 마치고선 함께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 콧지막하고 예쁜 케이크도 했다. 이것저것 부랴부랴 챙기다가 한 시 수업에 두 시가 거의 다 되어 도착했다. 늦었다. 이럴 수가.. 학생들이 없다. 당구대에 앉아 있는 학생은 딱 두 명뿐 이었다.

약속 시간을 정하면 꼭 30 분이나 한 시간 뉘름 도착하는 것이 필리핀 타임이다. 우린 항상 가타리게 되더라도 제 시간에 가자! 라고 약속했었는데, 그 날 많이 늦어버렸다. 늦으면서도 한 편으론 지금쯤이면 학생들이 모였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런데 없다. 남아 있는 두 여학생에게 물으니 남학생들은 한 시 반까지 있다가 같이 놀러갔다고 한다. 이럴 수가.. 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상실감도 컸다. 그 길로 우리는 산 이그나시오를 돌며 학생들을 찾기 시작했다. 마을을 돌던 가흔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다. 약 2 주 전부터 결석을 하던 한 여학생이 집에서 동무들과 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 순간을 포착한 것. 가흔은 왜 수업에 나오지 않는냐고 물었다. '자금은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서 수업에 참여하기 싫고, 카드 놀이 중이라 바쁘다. 내년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겠다' 이것이 그녀의 답변이었다. 문제도 정말 잘 풀고 태도도 적극적이어서 첫 수업부터 눈에 띄었던 학생이었는데.. 씩씩하기 보단 놀란 마음으로 다시 당구대 앞으로 돌아왔다. 그래도 마을을 돌며 조금 가타리니 두 남학생이 더 왔다. 이렇게 올 한 해의 마지막 수업은 학생 넷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처음, 엄청난 상실감에 휩싸인 우리는 그래도 수업을 시작하자 차츰차츰 힘을 찾기 시작한다. 소규모 클래스의 좋은 점도 있는 것 같다. 매년 연습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앞으로 한 명씩 나가 화이트보드에 문제를 풀게 하는데, 수가 얼마 없어서 자기 차례가 빨리빨리 돌아오자 학생들이 엄청나게 수업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 모습을 보니 귀엽기도 하고 재미있다. 그만큼 집중해 주는 학생들과 더 열심히 하게 된다. 숙제도 나누어 주고 수업을 마치고는 함께 케이크를 먹었다. 당구대 근처를 서성거리며 놀던 아이들과도 나누어 먹었다. 이곳에서 수업을 한 이래로 가장 해맑은 모습으로 케이크를 먹는 아이들을 보며 준비하길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수업을 참여하지 못해 아직 방학을 하는지도 모르는 소년들에게 숙제를 전하기 위해 우린 다음주 월요일 한 시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거듭 약속을 하고선 산 이그나시오를 떠났다.

이것도 하나의 시행착오 아닐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하루 학생들을 더 많이 알아가고 수업을 지속해갈수록 더욱 고민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수업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채울 수 있을지. 어떻게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우리도 더욱 수업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게 되었다. 하나 또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고 말았다. 그리고선 다시 배웠다.

수업을 나오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도 말이다. 처음엔 몇 십 명으로 시작했던 클래스도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다 보면 결석은 다반사고 일 년 내내 진행되는 ALS 클래스에 참여를 하고선 정작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학생도 있다. 집안 사정 때문에 혹은 시험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심지어 지각을 해서 늦기 까지도.. 그럴 때면 우리 입장에서 애가 타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것 역시 긍정적으로 생각 할 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즐겁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니까. 그럴 때만이 그들에게도 의미가 있을 테니까. 시험은 매년 있으며, 기회는 누구나 가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 그래도 ALS는 계속된다 쭉쭉-

ALS 클래스가 또 다른 곳에서 새롭게 시작되었다. 우리가 커뮤니티를 조직하고 있는 발록에서 말이다. Livelihood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YMCA 활동을 소개하면서 ALS 이야기가 나왔고, 이 곳에서 ALS 클래스를 원하고 있는 학생들이 제법 있어 mapping 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덧 발록 클래스의 학생이 삼십 여명이나 된 것이다. 그리고 매회 수업마다 새로운 학생들이 등록하고 있다. 우리가 9 월에 발록을 방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이 곳에서 커뮤니티를 조직하지 않았더라면. 아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잘된 일이다. 다른 바랑가이에서 mapping 을 하다 보면 ALS 를 원하는 학생이 있어도 가정 형편상 일을 해야 하거나 부모님이 반대해서 클래스를 등록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꽤 있는데, 여기에선 나나아들이 먼저 와서 자녀들의 mapping form 을 달라고도 하신다. 발록에서는 특히나 학교가 멀어서 다니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고 들었다. 무엇보다도 거주 환경이 배움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니 안타깝기도 했지만, 한편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참 행운이다. 아직 수업을 진행한 날은 얼마 되지 않아 수줍어하는 학생들도 많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그들은 함께 공부를 하기 위해 모여 있는 시간 자체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곧 다양한 스토리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제 막 첫 걸음을 댄 발록의 수업을 다음, 또 그 다음 기수도 잘 해나갈 거라 믿는다. 무엇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발록의 학생들이 있어서!

## Amazing Women, 그들을 파헤쳐다 @발록

Written by Daniel

지난 달 발록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 CO 에 대한 설명을 하고 프론트라인의 도움으로 설문 조사도 하면서 이곳에서의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총 12 명의 여성들이 모였다. 여성들은 20 대부터 50 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과 함께 12 월의 시작과 동시에 오리엔테이션과 트레이닝이 시작되었다.

마미 크리스티가 진행한 오리엔테이션은 유쾌한 웃음이 가득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정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이 자리에 모였는지 등을 이야기하면서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시작된 어머니들의 첫 트레이닝 시간. (우리는 이 분들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다) YMCA 의 없어서는 안될 선생님이자 또 다른 우리들의 엄마, 띠띠 그레이스가 바나나 칩 만들기 교육을 시작했다. 어머니들은 띠띠 그레이스의 작은 말과 행동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듯, 열정적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었다. 덩달아 우리들도 어머니들 틈에 끼어 바나나 칩 교육에 열중하였다. 적극적인 참여가 눈에 띄었던 오리엔테이션과 첫 트레이닝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발록에서의 Livelihood project 는 바나나 칩뿐만 아니라 스낵서 누들(호박 국수)까지 확장되었다. 트레이닝이 진행 중이던 12 월 6 일에는 공동체를 이끌어 갈 4 명의 임원을 선출하게 되었다. 선뜻 나서는 사람도, 누군가를 추천하는 사람도 없었다. 마미 크리스티는 누구나 다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비 뽑기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선출되고서도 그 직책이 버겁고 부담되어 불편해 하는 기색이 역력한 어머니도 있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7일동안 격일로 바나나 칩과 스쿼시 누들 교육이 이루어졌다. 특히 직접 생산한 스쿼시 누들을 이용하여 스파게티와 로미(필리핀 국수)를 직접 요리해 시식함으로써 누들을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7일 간의 트레이닝 이후 12월 12일 월요일, 우리는 어머니들과 함께 수료식을 진행하였다. 1명은 중간에 더 이상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고, 다른 1명은 프론트라인의 쿼팅 프로젝트에 이미 참여 중이어서 상당 시간 트레이닝에 참석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수료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 날, 총 10명의 어머니들이 수료증을 받았다. 트레이닝 이후에는 어머니들끼리 바나나 칩과 스쿼시 누들을 정기적으로 모여 만들고 있다. 처음에는 바나나 칩 포장을 위한 특별한 도구가 없어 모기향의 불씨를 이용하여 포장지를 녹여 붙였고, 끈기가 있는 스쿼시 누들 반죽 때문에 돌돌 말아서 한번에 썰지 못하고 국수를 하나하나 칼로 썰어야 했지만, 12월 중순에 도입된 포장 기계와 국수 썰는 기계 덕분에 어머니들의 수고를 덜게 되었고 더욱 질 높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마미 크리스티는 몇몇 장부를 임원들에게 제공하여 출석 여부, 이윤 분배, 생산량 등을 체계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틴틴이 그들의 장부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은 격려하여 공동체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Amazing Women(마미 크리스티는 어머니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이 만든 상품의 이름을 'Young Mother's Homemade Product'라고 명명하였다. 상품명을 Young Mother's 로 지음으로써 YMCA 가 주관하는 Livelihood Project 임을 표현하고자 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상품은 프론트라인의 교회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재래 시장, 대학교 매점, Mami ni Tita OSang(San Pablo 에서 유명한 Mami 식당. '9 월호\_연애하다 우리' 중 '이 달의 마사랍' 참조)등과 접촉하고 있어 추후에 공식적으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마미 크리스티의 인맥과 프론트라인의 규모를 이용하면 현재 생산량의 대부분은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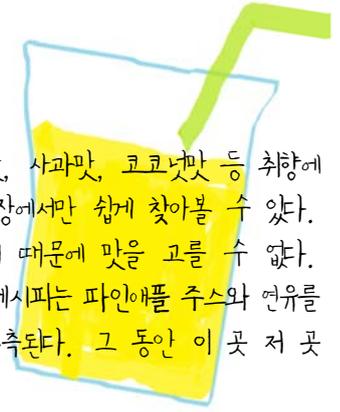
어머니들과 함께 한지 어느덧 한 달. 처음에는 어머니들도 서로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조금은 어색한 기운이 돌았지만 지금은 서로가 친구처럼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라온아빠들도 어머니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난 한 달이었다. 우리는 Amazing Women 이 마치 지난 10 월에 오로라에서 만났던 어머니들과 유사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항상 즐거운 웃음이 가득했던 모습, 아이들도 같이 와서 뛰놀던 모습 등이 오로라를 연상시켰다. 몇 년이 흘러도 변함없이 즐거운 찬때를 보내던 그들처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 발록의 어머니들도 오래도록 서로가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해 본다. 이제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시간은 한 달. 하지만 우리의 엄마, 마미 크리스티가 있기에,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았기에 조금은 덜 무거운 마음으로 조용히 떠날 수 있을 것 같다.



야탈의 마사람!!

### 팔라믹(Palāmig)

팔라믹(=Palāmig)은 차가운 음료. 단 돈 5 페소에 맛 볼 수 있는 청량감. 파인애플맛, 망고맛, 사과맛, 코코넛맛 등 취향에 따라 다양한 맛을 선택 할 수 있으나…… 이렇게 여러 가지 맛을 한꺼번에 취급하는 곳은 큰 시장에서만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하여 어지간한 Sari-Sari Store(한국의 작은 구멍가게 같은 곳)에서는 한가지 맛만 팔기 때문에 맛을 고를 수 없다. 라온아띠가 주로 애용하는 곳은 산파블로 YMCA 와 1분거리에 위치한 이동 Sari-Sari Store! 레시피는 파인애플 주스와 연유를 적절히 섞은 후, 무엇인지 모르는 하얀 가루를 첨가한 후, 얼음을 넣어 시원함을 더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 동안 이곳 저 곳 돌아다니며 술한 팔라믹을 맛보았지만, 아무래도 팔라믹은 역시 Y앞이 제맛아제!!



## Acculturate, Enculturate!

필리핀에서 술이란? \* 우리 생애 가장 뜨거운 크리스마스

### 필리핀에서 술이란?

Written by Albert

술! 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 누구도 술이 사람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곳 필리핀도 마찬가지. 이미 필리핀의 모든 맥주를 섭렵할 때까지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 Albert 는 그 동안 수많은 술자리에 참여했다. 물론 한국에 있을 때처럼 자주 마신 것은 아니지만…… 필리핀에서 술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다같이 알아보자. Albert와 함께 출발!

술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 취하게 해서 진심을 끌어낸다. 물론 실수를 불러온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는다(죄송합니다 아나 간사님). 지난 호에 소개 된 마미 크리스티의 아들 아이안과 이번 크리스마스에 술을 마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아이안과 내가 공감한 가장 큰 것이 술을 마시므로써 서로 진심을 쉽게 이야기 할 수 있고 그로써 친근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 혹은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



우리는 필리핀에 오기 전 라온아띠 워크북에서 이러한 말을 보았다. 필리핀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지인(부하, 비서, 친구 등등)을 대동하는 경우가 많다고……설령 둘이 만나기로 한 약속에도 말야. 이 말은 참이쨌다. 특히 술자리에선 더욱 그러했다. 예를 들면, Sam(9 월호 인명사전 참조)의 생일 날, 술자리에 우리의 영어 선생님이신 Sir Cris 께서 친구분을 대동하고 오셨다. 그땐 조금 놀랐었다. 우리의 숙소에서 파티가 진행되었으며 친구들과 YMCA 식구들만 오는 자리만큼 알았기 때문야. Sir Cris는 말하셨다. “같이 즐기려고 친구랑 같이왔다고.”

이것이 바로 필리핀에서 술이 가지는 의미를 알 수 있는 키(key)라고 할 수 있다. 원래 동행을 자주 하지만 특히 술자리에선 더욱 그러하다. 술과 함께 ‘같이’하기 위해서……기쁨 면 함께 즐기고, 슬픔 면 함께 슬퍼하기 위해서 말야.

이런 예는 필리핀 사람들이 술 마시는 방법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와도 비슷한 문화인데 바로 술잔 돌리기!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술잔을 여러 잔 활용하지만 필리핀에서는 술잔 하나로 모든 사람이 돌아가며 마신다. 한 명이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마시는 방식이다.

Sam 과 Tatay(사만타의 외할아버지이자 띠띠 그레이스의 아버지)는 필리핀에서 술을 소개해 준 선생님과 같은 존재야. Tatay 는 항상 장난으로 지나가는 길에 한잔씩 하라고 하신다. 처음 우리가 마신 술은 Lambanog(람바녹)! 필리핀의 전통 술로 코코넛을 증류하여 만든 Non Chemical 의 깔끔한 술야. 75 퍼센트의 독한 술이지만 뒤끝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 맛은 정말 일품!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들이 즐기며 가격 또한 저렴하다(특히 San Pablo 는 코코넛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다). Tatay 는 아끼시던 6년 근 람바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셨다. Albert 뿐만 아니라 Sun과 Genie 역시 람바녹의 팬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다. “기쁨은 나누면 2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고……술과 함께 하면 4 배가 될 수도 있고 4 분의 1 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지나친 과음은 실수를 불러오고 간경화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필리핀 사람들에 있어서 술이란 함께 하기 위한 유희라고 할 수 있다. 요새 특히 많은 필리핀 친구들이 나를 초대한다. “같이 하자고, 같이 술 한잔 하자고!”



## 우리 생애 가장 뜨거운 크리스마스



Written by Honey

‘얼마나 이 곳에서 머무나요?’ 우리가 이곳 San Pablo City 에서 지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5 개월 동안 머무는다는 대답에 사람들은 ‘그럼 크리스마스도 여기서 보내겠네요?! 필리핀의 크리스마스는 굉장해요!’ 라고 자주 말했죠. 궁금했습니다. 한국의 크리스마스도 평범하게 지나치지는 않았지만, 필리핀의 크리스마스는 과연 어떻게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 하는 걸까요.

그러던 9 월의 어느 날, 우연히 TV 뉴스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뉴스는 떠갈로그로 진행되고 있었기에 이해할 수 없었죠. 그렇게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가 순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뉴스의 막바지 부분, 커다랗게 D-DAY 를 세는 화면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그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D-DAY 였습니다. 그 때가 9 월 초였으니까, 아마 크리스마스가 되기 100 일도 전이었죠. 우와 100 일도 전부터 크리스마스를 하루하루, 그 것도 TV 뉴스에서 세고 있다니 그야말로 새로웠습니다. 매해 12 월 16 일부터 그 이듬해 1 월 첫째 주 일요일까지가 필리핀의 크리스마스 축하 기간입니다. (이번 해는 1 월 1 일이 마침 일요일이라, 아쉽게도 딱 1 월 1 일까지만 그 기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은 물론이고 크리스마스가 지나고도 한동안은 계속 ‘Magandang PaSkol!’(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나눕니다. 약 3~4 주에 걸친 필리핀의 이 크리스마스 축하 기간은 세계에서 가장 길다고도 합니다. 필리핀의 국교가 가톨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한국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리핀에서 보내게 된 크리스마스는 그 예상보다 더 특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애 가장 뜨거운 크리스마스를 이 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한국의 크리스마스는 늘 추운 겨울입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크리스마스는 뜨거운 여름입니다. 워, 더운 계절 탓에 새하얀 눈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신할 더 아름다운 풍경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두 세달 전부터 집집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장식을 합니다. 집안뿐만 아니라 집 대문이나 창문, 현관까지 아기자기하고 알록달록한 장식으로 집을 꾸밈니다. 반짝반짝 화려한 조명도 빠지지 않죠. 덕분에 오며 가며 집집마다 다른 장식을 보는 재미도 꽤 쏠쏠합니다.

반짝반짝, 조명도 햇살도 뜨거운 한 여름 날의 크리스마스. 단순히 이 때문에 ‘우리 생애 가장 뜨거운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 한 건 당연히 아닙니다. 필리핀에 와서 지난 세달 간 느꼈던 이곳의 가족중심적인 문화, 서로 초대를 하며 나누는 정, 그리고 늘 즐기면서 사는 행복한 삶, 이 모두를 크리스마스 기간인 12 월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난 3 개월에 느꼈던 것들의 종합편이 이번 달 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루하루가 마음이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함께 소망했죠. 또 우리는 네 번의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여했습니다.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게임을 하며 그저 같이 즐겼습니다. 그리고 이 전까지의 크리스마스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축하했습니다. 가족들끼리 친지들끼리 모여 맛있는 식사를 같이 하고, 서로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한 편으로, 마치 한국의 명절 풍경과도 같아 보입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아이들은 어른들께 존경을 표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축복과 함께 약간의 용돈을 주기도 하거든요.

아, 이야기를 들을수록 라온아띠가 필리핀에서 보낸 ‘우리 생애 가장 뜨거운 크리스마스’가 어땠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이야기 보따리를 저절로 풀어 볼까 합니다. 따라오세요, Halika(come on)!!

# We wish your Merry Christmas

Written by Honey

‘Silent night, Holy night ♪’

12 월의 어느 날, 매주 있는 Tita Cecil 의 영어수업시간에 우리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보았습니다. Tita Cecil 께서는 캐롤링을 할 때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캐롤링은 전통적으로 필리핀에서 크리스마스의 긴 기간 동안 행해지는 풍습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함께 축하하는 의미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릅니다. 노래를 통해 가정의 행복을 바라면서 동시에 그 보답으로 약간의 폐소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것을 모아 크리스마스를 위한 음식 같은 특별한 것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Mommy Kristy 께서 말씀하시길 그 시작은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를 아주 오래 전이라고 하네요. Mommy Kristy 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12 월이 되면 거리마다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졌기 때문에 캐롤링이 없는 고요한 크리스마스는 상상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캐롤링은 필리핀의 크리스마스에선 약방의 감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필리핀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우리 라온아띠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

우리는 첫 번째 캐롤링으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멀리 이탈리아에서 교국을 찾아 오신 Ate Dts 의 부모님께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처음 하는 캐롤링이라 입도 잘 안 맞고 서툴기도 했지만 환한 미소로 우리의 노래에 ‘Magandang Pasko!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답해주셨습니다. 그 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아, 정다운 한 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쉬웠습니다. 사실 16 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것이 원래 계획인데 첫 캐롤링은 갑작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부족했다고 느껴졌습니다. 한국어 캐롤을 더 흥미롭게 들어 주시는 모습에 인상을 받아 곧 한국어 + 영어 + 따갈로그까지 다양하게 인삿말까지 하여 준비했죠. 그리고 16 일 저녁 본격적으로 Batang-Y, Toffer, Mommy Lylyne 과 함께 캐롤링하러 출발합니다. 어두운 San Lucas 의 골목을 돌아다니며 노래를 부릅니다. 한 집, 두 집, 열 몇 채의 집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몸도 조금은 지쳐가고, 기타를 치는 건희 손끝의 고통은 더해져 갔지만, 그래도 마음은 즐거웠습니다. 사람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우리도 역시 행복했습니다. 집집마다 우리의 노래를 듣고 나와 약간의 폐소를 주십니다. (홈메이드 브라우니를 만드는 집에서는 브라우니를 한 상자 가득 주셨습니다. 물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돈은 바공 포옥 초등학교 피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미드 나잇 스낵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아, 필리핀에서는 24 일에서 25 일 크리스마스로 넘어가는 자정에 온 가족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꼭 빠질 수 없는 풍습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것을 미드 나잇 스낵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우리의 마지막 캐롤링은 Tita Cecil 께서 소개해주셨습니다. Mommy Kristy 딸 Jek 과 Mommy Kristy, Tita Cecil 그리고 라온아띠가 함께 San Marcos 로 향했습니다. Tita Cecil 도 초행길이었기 때문에 비록 값싼 길을 1Km 정도 다시 돌아와야 하는 작은 해프닝도 있었지만, 그 길마저도 즐거웠습니다. 아마도 이 역시 우리가 이미 캐롤링을 즐기고 있다는 증거겠지요. 어렵사리 찾아간 집에서는 미모의 Tita Cortez 께서 우리를 반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캐롤링 초청장을 Tita 께 드렸습니다. 초청장에는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기원한다는 내용과 함께 우리가 캐롤링을 통한 수익금으로 좋은 일에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또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Mommy Kristy



그리고 라온아피 다섯 명의 서명도 남겼습니다. 우선, Jek 이 가정의 축복을 바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라온아피의 캐롤링이 이어졌죠. 그 뒤 Tita 께서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담소를 나누며 크리스마스를 함께 축하했지요.

사실 우리가 캐롤을 부르고만 다닌 것은 아닙니다. 어느 12 월의 고요한 저녁시간, 저기 대문 앞에서부터 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밖을 내다보았죠. 몇 명의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역시 정겨운 캐롤링에 대한 보답으로 약간의 폐소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캐롤링을 하며 사람들의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소망한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로 부터 우리의 크리스마스를 축복받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캐롤링은 매일 우리 집 앞을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하루에도 몇 명의 아이들이 우리 집 앞을 다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덕분에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이렇게나 행복할 수 있었나 봅니다.



## 파티 피플~! (Party People)

Written by Genie

내 생애 이렇게 많은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여한 해는 처음이다. 필리핀에서는 무려 크리스마스 100 일 전인 9 월부터 크리스마스를 카운트다운 한다. 그렇기에 12 월은 본격 크리스마스 시즌~! 12 월이 다가오자 우리의 캘린더에는 예기치기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파티 일정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오예 썬나다!

첫 번째 파티는 가리테 도장에서 열리는 파티였다. 우리가 매 주말마다 가리테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은 작은 도마뱀의 애독자라면 다 알고 있을 사실! 실은 파티가 열리기로 한 날 우리는 마닐라로 떠날 계획이어서 참가를 못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우리도 가리테 파티에 참여를 하길 원했고, 센세 존(이번 달 인물소개 참고, 하 훈훈^^)께서도 우리가 함께 했으면 하며 시간을 조정하셨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파티의 시작 시간은 무려 아침 8 시가 되었다. 파티 준비물은 하나였다. 바로 일정 금액 이하의 교환 선물을 하나씩 가져가는 것. 누가 될 진 모르지만, 받고선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고심하고 고심하며 선물을 골랐다. 필리핀에서의 첫 크리스마스 파티라 이곳에선 어떻게 즐기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파티의 첫 순서는 서로 팀을 나누어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기! 각 팀마다 분배된 노래 소절을 외워서 우리 팀 앞으로 마이크가 오면 목청껏 부르다가 마이크가 다른 팀으로 갑작스레 이동하면 딱 멈춰야 한다. 어느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몰입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여러 게임들 즐기다가 맨 마지막 순서의 게임을 할 차례! 앓 문제의 게임(그저 이 게임을 이렇게

지칭하겠다)에 봉착했다. 이걸 여기서 처음 만난 게임인데, 바로 허리춤에 끈으로 땅에 거의 닿을 듯 하게 가지를 묶고, 끝반을 움직여 바닥의 성냥갑을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시키는 게임..!(상상은 자유) 그 모양새가 처음엔 참 난감했다. 이 게임 중 훈훈한 카리스마로 우리의 가리테 시간을 즐겁게 해주시던 센세 존의 다른 면모를 발견했다. 칭찬유수 같은 진행속씨에 게임의 재미를 더하는 효과음(?) 우후! 우후!

열심히 몸을 움직이고는 준비된 음식을 맛나게 먹었다. 파티의 마지막 순서는 선물 교환! 각자 준비해 온 선물을 앞에 내면 각 선물에는 번호가 붙는다. 그리고는 순서대로 제비를 뽑아 나온 번호의 선물을 갖는 것! 내 번호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초콜릿이었다. 얼마만일까,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다가 야릇을 적 양말을 머리 위에 놓고 가대에 부풀어 잠들던 내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다.





두 번째 파티는 우리가 발록을 통해 만난 프론트라인 단체에서 여는 파티였다. 이날은 우리가 이전에 방문했던 DSWD(정부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보육원)와 프론트라인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었다. 파티 플래너이신 띠따 율마와 함께 파티 준비를 도왔다. 셀로판지를 잘라 붙여 파티 분위기를 내고 테이블도 놓으니 제법 근사했다. 뒤 편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부스들도 마련되어 있었다. 핫도그, 아이스크림, 솜사탕 등 먹거리 부스와 페이스 페인팅. 한 사람에게 한 장씩 주어지는 쿠폰에 스탬프를 찍으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부스다. 우리 라온아빠는 각자 부스를 하나씩 맡아서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스탬프를 찍어주는 역할을 맡았다. 준비를 마치고선 아이들을 맞이했다. 한 번밖에 보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은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너무나 반가워했다.

나는 여기서 특별한 경험을 했다. 바로 페이스 페인팅! 페이스 페인팅을 원하는 아이들은 많은데, 해 주는 사람이 한 명뿐이라 일손이 부족해 직접 그리게 된 것이다. 볼에 그리는 작은 꽃이나 하트는 해볼 수 있겠다 싶어 자리에 앉아 그리기 시작했다. 어느새 줄은 길게 늘어났고 내 앞에 앉은 아이가 스파이더 맨을 주문했다. 허억 이걸 얼굴 전체를 사용해야 하는 고난이도의 기술..! 심호흡하고 과감하게 얼굴을 빨갛게 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붓으로 난을 차듯 거마줄을 그리니.. 오 제법 스파이더 맨

같았다. 옆에서 보던 다니엘은 자기도 할 수 있겠다며 시도해 보았다. 그는 아직 어디든 어린 아이 얼굴에 스파이더 맨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거마줄 굵기가 다니엘 손가락 굵기다.. 아이에게 미안했다. 하지만 서투른 그림에도 맘에 든다며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니 참 뿌듯했다. 몇 시간 정도였을까 손에 잔뜩 물감을 묻히며 페이스 페인팅을 하다가 중간중간 맛있는 간식도 먹고 춤도 추다 보니 벌써 파티를 마칠 시간이 되었다. 우리가 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하지만 그들은 알까 우리가 그들로 인해 오히려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24 일 아침, 직접 만든 에그 샌드위치와 판싯(10 월호 이달의 마사랍 찰초)을 들고 DSWD를 한 번 더 방문하게 된다.

12 월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던 발록에서도 크리스마스 파티는 빠질 수 없었다. 이날은 또한 다니엘의 생일이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축하해주었고, 역시나 유쾌한 시간이었다. 여기서도 문제의(?) 게임은 계속된다. 허리춤에 플라스틱 봉지에 쌀인 계란을 매달고 짝을 지은 후, 골반을 사용해 서로의 계란을 먼저 깨뜨리는 팀이 이기는 게임. 필리핀에서 꽤 인기 있는 형태의 게임인가 보다. 누구보다 열성적인 나나아들부터 키여운 아이들까지 게임을 즐겼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게임 진행을 도왔다. 참여하는 것보다 보는 게 더 즐거운 현상이었다.

크리스마스가 지난 28 일, 이번엔 우리가 파티를 열고 초대를 했다. 필리핀에선 크리스마스가 지나고서도 ‘마간당 파스코!(Merry Christmas!)’라는 인사를 건네고 그 축제 분위기는 새해까지 이어져서, 크리스마스 파티 역시 끝나지 않는다. 이날은 우리가 지금까지 활동했던 바공 포옥 초등학교의 아이들과 ALS 학생들을 초대했다. 피딩과 ALS 수업이 방학 중이라 행여나 잊고서 오지 않을까 걱정했더니 이거 왜걸 아이들은 오후 두 시에 시작될 파티를 기다리며 아침 8 시경부터 YMCA 앞으로 와 서성이고 있었다.

드디어 YMCA 앞 잔디밭에서 파티가 시작되었다. 이날도 다양한 게임을 진행했고, 역시 필리핀에서 빠질 수 없는 춤과 음악도 함께했다. 상품을 받기 위해 게임에 완전히 몰입한 아이들을 보며 ‘이야, 장난 아니다..’하며 재미있게 보고 있었는데, 마미 크리스타가 ALS 학생들과의 게임 한 판을 제안했다. 팀을 둘로 나눠 자루 포대 속으로 들어가 뛰어서 목적지를 돌아 오는 릴레이 경주. ALS 학생들과 바탕 와이, 라온아빠를 끌고루 섞어 팀을 나눴다. 아이들을 보며 이렇게 열심히 하나..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 장난 아니다. 부상은 마다 않고 자마다 머리카락 휘날리며 잔디밭을 뛰었고.. 우리 팀이 역전승을 했다! 마지막까지도 흥겨운 춤과 노래로 이어지는 파티. 수줍어하던 아이들도 아내 곧 즐기고, 춤과 노래를 뽐내는 모습이 참 귀여웠다. 항상 이렇다. 처음엔 우리가 어떻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로 고민이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이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마지막으로는 바탕 와이가 직접 요리한 마카로니 수프와 빵으로 배속도 든든히



하고선 아이들과 인녕했다.

파티라고 해서 특별한 무언가가 짠 하고 나타나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여기서 그저 함께 나눌 수 있는 조금의 음식과 음악, 그리고 파티를 즐길 준비가 된 사람들만 있다면 오케이야. 어느새 라온아피도 필리핀에서의 모든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었다. 필리피노들은 파퀴 피플~ 라온아피 역시도 파퀴 피플~!

## 가족과 함께한 크리스마스(24일~26일)



Written by Daniel

내 생애 가장 뜨거운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우리는 마미 크리스티의 시댁인 San Lucas 를 찾았습니다. 지난 해에 할머니를 먼저 하늘 나라로 떠나 보낸 할아버지(마미 크리스티의 시아버지)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서였죠. 사실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끔씩 이곳에서 저녁을 먹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날 저녁, 우리는 옹기종기 모여 조금은 늦은 저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지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마미 크리스티는 다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카로니를 삶기 위해 물을 끓이고, 과일 샐러드 만들 준비를 하고, 그리고 판싯 요리에 쓰일 야채를 다듬었죠. 왜 저녁의 기운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 음식을 준비하냐면요, 그건 크리스마스가 되는 자정, 국민의 90% 이상이 카톨릭 신자인 필리핀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미드나잇 스낵(Midnight Snack)을 먹기 때문입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되었음을 알리는 시계 종소리가 울리자, 우리는 서로에게 'Magandang Pasko! Merry Christmas!'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마미는 잠들어 있던 가족들과 건희, 그리고 민선이에게 조용히 다가와 입을 맞추며 'Merry Christmas' 인사와 함께 자고만 선물을 주셨지요. 물론 깨어 있던 저와 승건이도 선물을 받았습니.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산지 오래되어 기대조차 하지 않았는데 마미의 깜짝 선물에 너무 감사했고 어린 시절의 크리스마스가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오순도순 모여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크리스마스와 준비된 음식을 위해 기도를 해주셨죠. 그렇게 우리는, 다이어트는 잊은 채, 밤 12시에 맛난 음식을 먹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밤, 찬껏 배부른 야식(?)을 먹고 늦게 잠든 탓인지, 조금 분주하게 집을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 식사는 우리의 쿡야인 필립 집에서 먹기로 했기 때문이죠. 서툴지만 유쾌한 영어를 구사하시는 필립 사촌의 인사 덕분에 찬껏 미소를 머금은 채 필립의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Magandang Pasko! Merry Christmas!". 기분 좋은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는 우리는 아침이 준비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먹는 필리핀 전통 음식인 수만이 코코넛 잎으로 싸여 식탁에 한 가득 놓여 있었죠. 마카로니 샐러드 역시 이곳에서 빼질 수 없는 크리스마스 음식인가 봅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을까요? 어디선가 하나



둘, 그의 친척들이 집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쿡야 필립의 오른 손등을 자신의 이마에 살포시 가져가며 'Magandang Pasko!' 인사를 했습니다. 필립은 그들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죠. 꼭 설날에 웃어른에게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는 모습 같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이것을 마노포(manopo)라고 부릅니다. 본래의 뜻은 'God Bless You'이지만 이러한 행동 자체를 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덩달아 쿡야 필립에게 마노포를 하고 작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뽀뽀한 새 지폐가 들어있었죠. 뜻하지 않았던 색다른 경험과 함께 귀한 선물 덕분에 우리의 크리스마스 아침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마음도, 주머니도, 그리고 배도 풍성해진 우리는 마미 크리스티의 친정인 Batangas City 로 향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서였죠. 버스를 한번 갈아타고, 또 지프니를 갈아타고 나서야 드디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마미의 가족들이 우리를 환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짧은 떠날로 고어로 인사를 하고 우리를 소개했지요. 그 동안 고향에 와 있던 우리의 친구, 토퍼도 오랜만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가벼운 담소를 나누다 보니 시간은 금세 흘러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이들을 위해 자그만 선물을 준비하신 마미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게임을 하며 선물을 나눠 주었습니다. 역시나 아이들은 선물이 좋은가 봅니다. 행복해 보이는 아이들과 함께하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그들과 같이 즐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미와 함께 다른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친구분을 만났고요, 마미의 친척이자 God Mother 의 댁을 방문했고요, 우리 친구 토퍼의 집에도 갔습니다. 친척이나 이웃 사촌을 찾아서 마노포를 하며 인사를 하는 것이 마치 설날이나 추석에 웃어른을 찾아가 문안 인사를 하는 듯 했습니다. 또 갈 때마다 음식을 내어주시는 것도 비슷했습니다. 이곳 필리핀에서의 크리스마스는 우리나라의 명절과 같나 봅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간단한 술자리를 갖기도 했죠. 약간의 술이 곁들여진 우리들의 이야기는 점점 무르익어 갔고, 그렇게 우리의 크리스마스 밤은 저물어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San pablo City 로 돌아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26 일까지,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하루가 아닌 3 일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한 3 일간의 크리스마스는 우리들의 지난 크리스마스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몸도 마음도 따뜻하다 못해 뜨거웠던 크리스마스였죠. 행복한 우리의 2011 년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 녹색소비를 위한 우리의 약속점검!

#### 1.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뽑기 / 사용하지 않는 전구 끄기 (★★★★☆)

이번 달도 11 월과 같이 별 4 개! 방 문을 나설 때 콘센트와 전등을 의식적으로 끄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가끔은 그대로 꽂혀 있는 콘센트와 환히 켜져 있는 전등을 발견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깜박한 실수를 혹시 발견하면 서로 말해주거나 도와주며 함께 녹색소비를 실천하도록 해요!

#### 2. 계획적인 소비(★★★★☆☆)

이번 달은 팀원들 개인적으로 소비가 많았던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매하기 전 얼마를 쓸지를 미리 계획하고 구매 후에도 지출을 기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실천항목 중 하나이지만 구매 전에 우리의 소비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12 월호를 마지막으로 우리의 Monthly letter 는 끝이 나지만 녹색소비를 위한 우리의 실천은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것입니다.

# We are TRULY living here!

溫故知新(온고지신) - 옛 것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알다 \* 12 월, 특별한 아들을 위한 특별한 생일 파티 \* 12 월의 스케치북

## 溫故知新(온고지신) - 옛 것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알다.

Written by Albert

출국 전 캠프에 가기 전날 이민선 단원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발대식 다음 날 참가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에 참여했던 내용이였다. 12 월 14 일엔 1000 회 수요집회가 있는데 그 날에 세계적으로 이와 관련된 활동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우리 라온아피도 그 날에 어떠한 활동을 계획하여 참여하자는 것이 그 골자였다. 이민선 단원은 스랴랑카 팀과 함께 출국 전 캠프에서 이러한 계획을 단원들에게 알렸다. 모든 단원들이 현지상황과 결부하여 생각해 보고 팀 별로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12 월 14 일이 다가오면서 우리 팀은 잊지 않고 이에 대한 회의를 하였다. 그러나 12 월 14 일은 평일이어서 이미 우리의 스케줄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활동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다고 판단, 특별히 우리의 스케줄을 조정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필리핀 및 제국주의와 관련한 역사 공부, 근처의 역사 유적지 방문 등 많은 의견이 나왔고 우리는 꼭 12 월 14 일이 아니라도 이와 관련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으므로 다른 날짜를 선택하여 '필리핀의 일본 식민지 역사관련 공부를 통한 sharing'으로 주제를 정하고 12 월 19 일을 타깃 데이트로 정하였다. 방법은 같은 주제로 각자 조사 및 공부하여 그에 대하여 느낀 점을 sharing 하고 이에 관한 것을 단원게시판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였다.

12 월 19 일 저녁 우리 모든 활동을 마치고 한 테이블에 모였다. 서로 같은 문헌을 조사해 웃기도 하였고 서로 몰랐던 부분에 대해 알게 되어 무릎을 탁 치기도 하였다. 서구 열강 및 일제가 아시아 국가에 대하여 행하였던 만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기도 하고 역사적 사실 뿐만 아니라 최근 듣지 못하였던 뉴스와 일본에 관련된 국제 소식까지. 서로 다른 시각과 견해를 나눈 이 자리는 단순한 공부와 활동이 아니다. 지구시민교육을 받은 깨어있는 청년 라온아피 라면 관심을 갖고 어떠한 것이 잘못되었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며 잘못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의견을 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는 가장 라온아피 다운 미팅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늦은 시간까지 계속된 sharing 으로 여자친구의 전화를 무려 6 통이나 무시했지만(다음날이 여자친구의 생일이였다) 이 특별한 자리는 가장 소중한 회의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다.



출국 전 수요집회에 참여한 스랴랑카 팀과 가훈, 민선

※※ 12월 19일 특별 회의의 개인 소감 ※※

**승진** 평소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던 분야여서뿐만 아니라 꼭 하고 싶었던 회의여서 이런 기회를 제안해 준 이민선 단원에게 먼저 감사하며 역사공부를 기피하는 이상한 시대에 라온아미 단원들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가장 비탄하게 여기시는 것이 젊은아들이 우리 시대의 일이 아니라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옛 것을 알아야 새로운 것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sharing이라면 여자친구 전화 10통도 안 받을 수 있다. 하하하.

**동수** 필리핀에서의 일본 식민지 시대를 공부하기 위해 알게 된 필리핀의 역사는 필리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한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있어 그 나라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또한 일본 제국주의의 위안부 실태를 조사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을 조금은 알 수 있게 되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값진 것을 얻은 커한 시간이었다.

**가흔** 지난 8월, 처음으로 수요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미 수업시간에 배웠고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접했기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것을 볼 때마다 동참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순간뿐이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바쁘다는 핑계로 잊어버리곤 했던 거죠. 그래서 부끄럽게도 행동으로 옮긴 적은 없었습니다. 8월의 그 수요일에 느꼈던 감정은 사실 지금도 생생합니다. 다시 한번 저도 무언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마냥 생각하게 되었죠. 그런데 필리핀으로 오게 되었고, 이곳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 또 그렇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2월 14일을 팀원들과 함께 되새기면서 저는 이번엔말로 더 이상은 핑계를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더 자세히 알기 시작했으니, 이제는 꼭 행동으로 이어하겠습니다.

더불어 12월 19일에 가진 시간을 통해, 그 나라를 이해하는 데 그 나라의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필리핀의 모든 역사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한 걸음쯤 더 필리핀이란 나라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아, 이미 마음으로는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하하.

**진희** 지금껏 한국에서도 위안부에 관련한 기사나 소식들을 많이 들어왔지만, 그렇게 듣고서 넘겼는지 더 알기 위해 행동하지는 못했었다. 그러던 와중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차근차근 알기 위해 다양한 용어의 정의들에서부터 증언들까지 찾아 읽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새벽까지 몰입을 하고 있었고, 감정 이입도 잘 되었던 것 같다. 그 새벽엔 가슴이 먹먹해져서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다.

내가 공부하고 알아본 내용을 팀원들과 나눌 땐 각자가 다른 시각에서 자료를 조사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궁금한 점을 묻고 또 답하면서 알던 사실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새로 알게 되었다. 그 과정이 재미있었고, 가슴 벅했다.

‘이것은 나 자신과 우리의 문제고 또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 나 역시도 옛날 때부터 역사를 참 딱딱한 과목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역사는 내게 그 당시의 스토리라이보단 텍스트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느꼈다.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하고, 곧 이것은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또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아시아의 문제이고, 세계의 이슈라고. 관심을 가지며 올바르게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그들이 연대하면 더 강해지고, 그렇게 조금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너무도 거창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난 이제 첫걸음을 떼 거나 마친가이다. 이 시간이 나의 어떤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가슴이 먹먹한 한편 뿌듯하고 마음이 벅차기도 했던 시간. 이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다.

**민선** 고등학교 2학년, 위안부 관련 동아리(정대협 산하 청소년 동아리 ‘햇남’)에 처음 들어갔을 때가 생각한다. 역사 선생님이셨던 담임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위안부에 관련된 충격적인 영상을 보고 처음 위안부가 무엇인지, 역사왜곡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처음 알게 되었다. ‘나도 무언가를 해야겠다.’와 같은 대단한 각오와 다짐으로 동아리에 들어간 건 아니었다. ‘더 알고 싶다, 궁금하다,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마음이 앞섰다. 동아리에서 홀로 이과 여학생(이것 역시 핑계일지 모르겠다. 하하;)이었던 나는 키 쫓곳 세우고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의 말을 열심히 따라가기에 버거웠지만 아들 사이에서 나도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다.

대학에 들어와 무언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폭은 더욱 넓어졌지만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혼자 책들을 읽어보기도 하고 관련 기사들이 올라오면 마우스가 저절로 그곳으로 향하긴 했지만 혼자이기 때문인지 이 역시 관심이 금방 사들해졌다.

그리고 6기 라온아피가 되어 우연히 스리랑카 팀과 수요집회를 참여하게 되었고 12월 14일, 1000회 수요집회 날에 우리도 각자 할 수 있는 실천을 해보자고 했다. 우리 팀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처음이었던 터라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스페인에 의한 필리핀의 식민지배 이야기부터 일본 제국주의, 위안부, 역사왜곡 이야기까지. 자유롭게 서로가 좀더 관심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다.

사실, 제안을 던지기는 했지만 다른 팀들뿐만 아니라 우리 팀 안에서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살짝 들었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몇몇 팀도 이날에 함께 하겠다고 (혹은 함께 했다고) 소식을 보내왔다. 고마워요!! 함께 해줘서\*^^\*

(라온아피 단원게시판 댓글내용)

백상현 11-12-15 23:51

필팁 오랜만입니다^^

태국 팀은 이야기를 나눈 결과, 이 주제에 관해 위안부와 관련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시청하고 테이오프 기간을 이용해 방콕 근처에 있는 깐짜나부리라는 곳의 "콰이강의 다리"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식민지배를 받지 않은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 다리는 일본 식민지배 시대 때 건설된 다리로 한국인을 비롯한 많은 피지배국의 노동자들이 다리 건설 중 목숨을 잃은 곳입니다. 근처에 관련 박물관도 있다고 해서 시간이 된다면 2차 세계대전의 흔적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메일 내용)

안녕. 스리랑카 팀 오혁준이에요.

저희 위안부 1000회 관련해서 토론했어요.

현지인과 케냐인과 이야기 하면서 서로의 식민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 서로의 고통을 함께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녁시간에는 저희 5명에서만 대화를 하면서 가벼우면서도 무겁기도 한 즐거운 토론을 했습니다. 필팁 잘 지내고 있죠? 항상 교생이 많아요. 나머지 4명의 팀원에게도 안부전해주세요.

# 12월, 특별한 이들을 위한 특별한 생일파티

Written by Sun

12월은 특별한 달이다. 2011년의 마지막 달이어서 그러하고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일을 맞이한 달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 달의 가장 처음으로 생일을 맞이한 사람은 롬닉(10월 인물소개 참조)! 바탕 Y 중 한 명으로 가장 말수가 적은 과묵한 청년이다. 그의 동글동글한 콧날과 볼록 튀어나온 배는 귀여운 아기 돼지를 닮아 우리는 그를 Baboy(돼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12월 11일, YMCA에서 소박한 음식과 함께 작은 생일파티를 열었다. 제프리 생일 때 우리가 준비한 케이크에 감동 받았었던 제프리의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는 롬닉의 생일에도 역시 예쁜 케이크와 선물을 준비했다. 선물로는 그가 평소 즐겨 입는 '사각팬티'처럼 생긴 짧고 타이트한 바지를 샀다. 우리는 그런 바지를 입고 YMCA 뒷마당의 구보(필리핀의 원두막)에서 잠을 청하거나 일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자주 목격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고도 분명 좋아할 거라 확신했다. 그의 반응은

조용한 성격대로 텅텅하였지만 그 또한 우리의 정성 어린 생일축하에 감동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모두 Board room(회의실)에 모여 음식을 먹으며 장난을 치고 있을 때, 그는 조용히 오피스에 앉아계시는 Mommy께 다가와 "Tita, Salamat po... (감사해요..!)"라고 부끄러운 듯 말했고 Mommy 역시 "OO(응..!)..!"하고 부끄럽게 답하였다.

제 5의 바탕 Y 멤버..인 것처럼 성실하게 YMCA의 일을 돕고 있는 '토퍼'군(애칭 움스, 우리는 그를 움빵이라 부른다. 11월 인물소개 참조)도 22번째 생일을 맞이하였다. 그의 생일파티 역시 바탕 Y들처럼 YMCA 안에 소박하게 치러졌다. 원래 그의 생일(12월 18일)은 일요일이었지만 그는 바탕가스(그의 고향)로 생일 전날 아침에 가야 해서 생일파티는 금요일 저녁에 열렸다. 움스는 생일파티를 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나 보다. 그가 메시지를 말하던 도중 울음을 터뜨렸다. 파티 전에 케이크를 사서 티가 나게 YMCA에 두었었는데... 움스는 생각지도 못했던 생일파티와 선물에 정말로 우리에게 고마워했다. 평소 토퍼라는 한글이 대문짝만하게 새겨진 티셔츠를 즐겨 입고 다니는 그의 모습을 보곤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로 티셔츠를 구입하여 팔 한쪽에 '우리친구 움스'라는 글자를 새겼다. 글자를 프린트하려 갔던 다니엘과 알버트, 허니는 프린트를 해주려는 가게가 마땅히 없어 가게들을 찾아 헤메느라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포장지를 풀어본 움스는 선물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 자리에서 입어보았다. 움스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마치 우리가 선물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행복해졌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생애 처음으로 대규모의 생일파티에 초대 받게 된다. 12 월 27 일은 사만다(Samantha)의 18 번째 생일파티였다. 사만다는 BRGY. VI-E 의 유스 চে어맨(청년 의장)이자 따따 그레이스(이번 달 인물소개 참조)의 첫째 딸이다. 18 번째 생일은 여자들의 성인식과 비슷한 날로 (남자들은 21 번째 생일이 그러하다) 보통의 생일보다 더욱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다. 이곳 필리핀 사람들의 성인식(여기서는 이를 '티뷔'라고 부른다)에는 18 송이의 장미(ROSE)와 18 개의 초(Candle), 18 개의 보물(Treasurer)이라는 관습이 있다. 여기서 장미는 남자들이 해당되는데, 이 날 주인공과 함께 한 명씩 나와 춤을 춘다. 초는 여자들로, 한 명씩 초를 들고 주인공 옆에 서서 축하와 함께 행복을 빌어주며 보물은 주로 주인공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어른들로 이들도 역시 앞에 나와 주인공을 축하해준다. 이 날 특별히 다니엘과 알버트는 18 송이의 장미 중 하나로, 허니와 지니, 썬은 18 개의 초 중 하나로 초대되었다. 우리는 이 날을 위해 하루 전부터 어울리는 의상을 찾느라 분주했다. 지니는 특별히 과감하게 어깨가 훤히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기로 하였다.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파티 초대에 꽃단장을 하느라 오랜만에 정신이 없었다. (특히, 여자들이 더욱 분주했다) 우리는 “오, 사만다,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Oh, Samantha, what are you doing to us?)”라고 우스갯소리로 농담하였다. 사만다의 생일파티가 열린 YMCA 체육관에 도착하자 많은 테이블과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생일파티라기 보다는 동네 잔치 같은 느낌이었다. 이 날의 주인공인 사만다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인 분홍색과 파란색이 가미된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였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어렸을 때 애지중지했던 미미인형 같았다. 사만다의 친구, 친척, YMCA 가족, BRGY. Chairman (바라가이 의장), 쌤(사만다의 남자친구)과 그의 식구들까지 모두 그녀의 생일을 함께 축하해주었다.



필리핀에서는 크리스마스나 명절처럼 생일 역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축하하고 즐기고 있었다. 항상 즐거움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필리핀 사람들, 어쩌면 이들에게 생일이란 단순히 누구의 생일이 아니라 함께 모이고 서로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어쩌겠든 저쩌겠든 우리에게 이미 특별한 존재가 되어버린 이들의 생일 덕분에 우리도 함께 즐기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고맙다. 12 월에 태어나주어.

## Albert's Reflection

내 여자친구만큼 사랑하는 필리핀

처음 라온아피에 자원할 때 | 순위였던 필리핀. 단순히 | 순위가 아니라 다른 나라보다 훨씬 가고 싶었던 나라. 언어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수월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YMCA 의 성격, 나의 관심사와 전공, 그리고 평소 친숙함까지. 지난 7 월부터 나의 2011 년은 필리핀과 짝 함께였다.

처음 필리핀에 도착해서 느꼈던 신기함, San Pablo 에 와서의 포근함, 친절한 사람들, 재미있는 다갈로그 등 필리핀은 도착과 동시에 나를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다. 단순히 내가 필리핀에 관심이 있고 음식이 입에 잘 맞는 등 적응을 잘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5 개월씩이나 살기 때문에 처음엔 걱정도 했었다.

하지만 5 개월은 사랑하는 필리핀과 함께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었다. 아직 끝이 아니고 한 달이 남았지만 슬슬 필리핀에서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필리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기에는 너무 짧고 아쉬운 마음이 전신을 휘감는다. '그땐 그럴 수 있었는데, 그때 그럴 걸' 등등 너무도 많은 후회가 남는다. 그런 후회를 하다가 문득 생각이 든 것이 내가 여자친구를 생각하는 만큼 필리핀을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 있어 여자친구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같은 관심사와 나의 꿈을 이해해 주고 응원해 주는 든든한 후원자야. 필리핀도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나의 꿈을 펼치고 싶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만큼 필리핀이 나에게 있어 소중한 듯 하다. 정말 지난 4 개월 간 그들과 함께 하며 한번도 기분 나쁘거나 어색했던 적이 없었다. 내가 단순히 그들과 취미가 같고 Talkative 한 성격이라서 그런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들이 날 좋아해주고 행복하게 해준 것야. 라온아피 교육 때 '내가 그들을 바꾸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러 가는 것' 이라는 의미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 되는 것 같다.

이제 내가 리더가 되어 우리의 마지막 한 달을 마무리 할 것야. 그 동안 만나고 함께 했던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했던 시간, 우리 생애 가장 뜨거웠던 5 개월을 단순히 좋은 추억이 아닌 이를 통해 한 단계 발전하고 친취직으로 사교하는 우리 라온아피 필리핀팀 6 가는 2012 년 새해에도 필리핀과 함께 사랑할 것야. 다시 한번 필리핀에 와있는 내가 너무 좋고 필리핀이 사랑스럽다. Maraming Salamat My Dear The Philippines.



## Daniel's Reflection

행복합니다. 기쁨과 슬픔,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을 만났구요, 유능한 선생님은 아니지만 열심히 ALS 수업에 참여해주는 다정한 학생들도 만났구요, 어릴땐 떠갈려고에도 즐겁게 웃어주며 즐거워해주는 순수한 아이들도 만났기 때문이죠. 가슴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한 이번 12 월과 지난 시간은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작은 도마뱀이 마지막 호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네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우리의 이별을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찡해져 아작은 아니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 하곤 합니다. 이별을 이야기하기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됐기 때문이죠.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 자세 태도??? 사실 그런 것이 있는 지조차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별을 생각하면 슬퍼지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잠시 접어두려고 합니다.

지난 4 개월, 참 다이나믹했죠. 항상 행복했고, 즐겁고, 유쾌하진 않았지요. 항상 그랬다면 삶이 재미 없지 않았어요? 부딪히고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질 때도 있어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도 있고, 더 성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의 지난 날들이 이러했습니다. 즐거울 때도 많았고, 힘든 순간도 가끔 있었죠.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결코 후회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두고 인생이라고 하나 봅니다. 어쨌든 좋아요. 돌이켜보면 힘들었던 순간도 이제는 쓴 웃음 지으며 떠올려 볼 수 있거든요. 재밌네요. ☺

아이들과 크리스마스 파티를 함께 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를 떠올려 봤습니다. 특별한 기억이 없더군요. 그 흔하다는 크리스마스 선물도, 이렇다 할 크리스마스 파티도, 저의 어린 시절 기억엔 크게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파티를 통해 저에게도 크리스마스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남게 됐습니다. 함께 웃으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내며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안겨준 아이들에게 참 고맙네요.



이번 달에는 저의 생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생일은 저에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아침에 미역국이나 먹고 저녁에 케이크까지 있다면 아주 만족스러웠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생일 이틀 전



발록에 어머니들을 만나러 갔을 때, 생일이라며 손수 만드신 바나나 칩을 5 봉지나 가방에 넣어주셨죠. 그러곤 그 다음 날에 갔을 때는 바나나 앞으로 예쁘게 싸인 파코(고사리 같은 나물) 한 다발을 두 번째 선물이라며 주셨습니다. 게다가 생일이 발록에서의 크리스마스 파티와 겹치면서 분에 넘치는 축하를 받았습니다. 저는 드린 게 없는데 너무 과분한 사랑을 주셔서 죄송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잊지 못할 생일을 만들어준 사랑하는 사람들, 고맙습니다.

이제 2011 년과도 작별을 해야 합니다. ‘작은 도마뱀’과도 그래야겠네요. 라온아띠와 작은 도마뱀이 함께한 시간들, 참으로 소중한 시간들. 돈 주고도 사지 못하는 값진 시간들, 그리고 기억들을 잘 간직해야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해야만 하나봅니다. 이제 우리는 떠나지만 우리가 떠난 산파블론는 예전과 같이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요란스럽지 않게 조용히, 아주 조용히 떠날 준비를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해보려 합니다. 아! 이 말을 꼭 해야겠네요.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준 우리 라온아띠 6 기 필리핀팀, 당신들, 사랑합니다.

# Genie's Diary

# 나, 그리고 2011

남들이 보는 내가 아닌, 내가 느끼는 나 자신을 알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환경 속에서 적응하며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있을 때 즐거운 것, 나를 가슴 설레게 하는 것, 가슴 벅찬 순간 등등.. 행복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궁금했던, 다른 점들도 발견했습니다. 보다 덜 즐거운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 많다는 것. 그리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활동들의 의미를 내면화하기 위해 고민했던 시간.. 이런 부분들을 사실 처음에 맞닥뜨렸을 땐 조금 마음이 씩씩하기도 하고 고민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 개월은 필리핀이라는 새로운 곳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나를 만나고 나에 적응해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알고 싶었던 느끼고 싶었던 부분을 정말 이룬 셈입니다. 다시는 없을 소중한 시간들. 이라고 말하며 후회 없이 2011년을 보냅니다.

# 우리, 함께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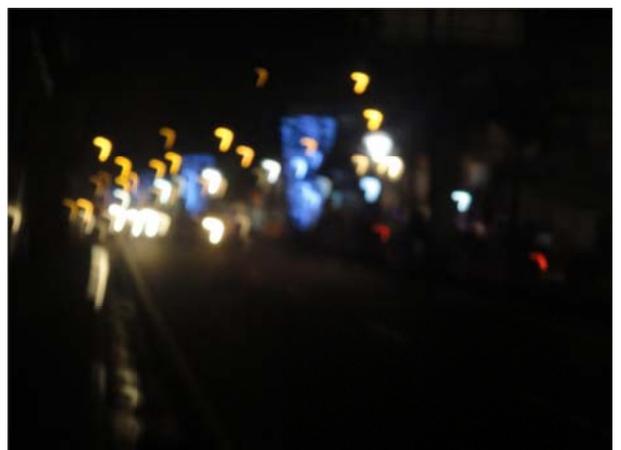
지금까지 내가 맞이하던 새해는 항상 겨울바람과 함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연말은 하나도 살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12월 31일, 산 루카스에서 YMCA 와 라온아피 가족이 함께 모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일찌감치 몇 시간 전부터 자정에 먹을 맛있는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놓고, 몇 분 전부터는 모두가 들뜬 마음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죠. 딱 12시가 되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인양며 "Happy New Year!" 새해인사를 하고 불꽃놀이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 때 '와, 정말 2012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이 큰 하나의 전환점이라기보다, 행복했던 2011년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시가 딱 치며 '2012'로 숫자가 바뀌어도 내 옆에 우리 팀원들과 YMCA 가족들이 그대로 함께였으니까요.

2011년 한 해 함께 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시간들, 그리고 특히나 라온아피로 필리핀에 와서 어려워 보이던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즐기고, 도전하던 순간들. 돌아켜보니 모두 '함께'였다는 걸 필리핀에 와서 많이 느꼈습니다. 여태껏 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난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기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었는데, 가끔 난 너무 나만 바라보며 살아오진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 내게 행복을 주었던 것들이 '함께'였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 내 자신만의 고만을 치열하게 하면서 살아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응하고, 외로움 느끼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아온 시간들을 회상하면서요. 텔레비전의 모 광고에 나오는 '같이의 가치'라는 문구. 이제서야 마음에 진짜로 다가옵니다.

2012년을 맞이하고 난 첫 번째 식사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012년 한 해도 함께 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 내 맘대로 에필로그

원래 맨 마지막 장에 남길 생각이었지만 숙스러워서 여기에 남깁니다. 이번 마감호를 마치며 쓰는 후기 말이에요. 이렇게 한 달 한 달 우리의 시간과 경험, 그리고 이야기를 기록하는 월간 소식지를 생각하고 만드는 과정이 참 즐거웠습니다. 또 이 과정이 내가 즐거워하는 무언가를 알아가는데 많은 도움도 되었고요. 공식적인 월간 소식지는 이번이 마지막이지만, 라온아피 필리핀 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작은 도마뱀 애독자 여러분!!! 늘 따뜻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팀원 여러분! 물론 모두 함께 만든 건데, 편집장이라고 불러주며 오히려 나에게 동기부여를 해줘서 고마워요 헤헤. 가끔 글로 표현해야 한다는 그리고 마감의 압박에 사달리면서도 각자의 색을 담아 열심히 해줘서 넘 고맙습니다. ☺



## Honey's Story



‘또각, 또각.’

봉숭아 물이 배꼽 남아있던 손톱을 잘라냈습니다. 이제 제 손톱에는 붉은 색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 제 색으로 돌아온 손톱을 보고 있자니 세삼 시간이 흐름을 실감합니다. 이번 ‘작은 도마뱀’이 우리의 마지막 호 입니다. 12 월도 오늘이 지나면 마지막이네요. 그리고 2011 년도 마지막입니다. 제 2011 년의 절반은 라온아띠로 짝 찼습니다. 돌아보자니 나름 뿌듯하군요.

저의 24 살도 이제 안녕이네요. 자꾸 마지막이라는 말을 하니 슬픈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어집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으려면 마지막은 당연한 거죠. 또, 헤어질 때도 안녕 하자만 만날 때도 안녕하니깐요. 이제 새로운 2012 년 25 살과 안녕합니다. 네, 저 벌써 25 살이 됩니다. ‘벌써’라는 말을 붙이니 나이 먹는 게 싫으냐고 묻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30 살이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저는 아직 모든 게 과정 중에 있거든요. 앞으로 하게 될 일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누구를 만나 사랑을 할 지도 모릅니다. 계속 부딪쳐보면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딪치는 일들은 성공일 수도 실패일 수도 있어요.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모두가 소중한 저의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매 순간을 즐기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그 과정들은 아직도 저에게 익숙하지 않고, 또 가끔은 어렵습니다.

라온아띠의 지난 4 개월 역시 그랬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부딪치고 깨졌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웃기도 많이 웃었죠. 힘들었던 시간을 견뎌내면, 다시 행복해지곤 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어른이 되는 과정일 거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해봅니다. 아직 어린 생각에, 왠지 30 살에는 조금은 제가 완성되어 있을 것만 같습니다. 5 년 뒤면 일에선 여전히 시작하는 단계일 수도이겠지만, 적어도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지 어떤 일을 잘하는 지는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그리고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은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허허.

자, 30 살이 기대되는 25 살, 이제 시작입니다!

# Sun's Letter

필리핀에서 쓰는 마지막 *Love Letter*

Dear YMCA Family & Mommy Kristy

벌써 한달 후면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도 벌써 지났고, 새해 1월 1일도 이미 지나가버렸는데 아직도 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지만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많은 것들을 알차게 체험하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요!

친 가족처럼 항상 따뜻하게 저희를 대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덕분에 외로움 타지 않고 재미나게 하루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곳에서 진짜 나눔이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 동안 함께 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말을 입으로만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반성을 하였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멋진 추억을, 소중한 사랑을 저희에게 나누어 주셔서 감사해요!

한국을 떠나왔을 때처럼 이곳을 떠날 때도 쿨~하게 안녕하러 합니다. 마치 내일 다시 볼 사람처럼. 하지만, 우리의 인연은 영원히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Thanks to you all, YMCA Family ♥



Mommy! 항상 감사해요.

어떨 때는 한국에 계신 진짜 엄마(엄마 죄송 ㅎㅎ;;)보다 더 자상하게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까요. 사실 한국에서는 나름 도와보겠다고 집안일을 하면 칭찬보다는 혼만 나기 일쑤였는데, 어썰튼 제 모습도 귀엽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도 가끔은 어썰프니까요. 하하;;)

4개월 동안 엄마가 YMCA에서 활동하시는 모습, 가족들과 YMCA 식구들을 대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엄마였다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제 자신에게 반문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곧 돌아오는 대답은 '자신없어.....'입니다. 제 마음의 그릇이 작은 것일까요? 그저 사람들과 다른 나만의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다른 것이고 무엇이 내가 틀린 것(부족한 것)인 걸까요? 4개월 동안 사실 가장 헛갈리고 답을 들을 수 있다면 캐묻고 싶었던 물음이었습니다. 답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겠쇼. 그리고 그 답은 제가 스스로 많은 것들을 겪으며 직접 찾아가야 하는 거겠쇼. 저에게 좋은 보기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사람들과 어떻게 나누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대단히 거창한 것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매우 소중한 무엇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옆에서 지켜보고 배우고 싶은 분이예요. 존경합니다.

Thanks to you ♥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 다가올 1월의 이야기 개.봉.박.두!

우리 무한도전 합니다. 1월 중순에 산 파블로에서 가장 큰 행사인 Coconut Festival 이 있는데요, 그 때 열리는 스트리트 댄스 경연대회에 참여하게 된 것...!!! 산 파블로에 사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보러 온다는 그 축제의 클라이막스를 함께 하게 된 것이죠. 춤이라면 두려움부터 앞서던 지니도, 뻗뻗한 썬도, 자기 식으로 춤을 해석 및 표현하여 주변을 웃음바다로 만드는 알버트도 도전합니다. 1월 초엔 아참타 YMCA 에서 ALS learner 들과 함께 댄스를 연습할 예정입니다. 이 연습은 예사롭지 않은 몸짓의 각도가 너무도 아름다운 필리핀 판 강마에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YMCA 체육관 전체에 찌렁찌렁 울려 퍼지는 칼칼한 목소리와 학생들 머리 그대이를 잡으며 동작을 가르치는 엄함 플러스 소프트함이 그의 매력) 의상도 기대됩니다.. 코코넛을 표현하는 의상을 입게 될 것이란 말이죠.. 기대되지요? 후후훗 저희도 기대됩니다.. 마 부하이 앙 산 파블로! 마 부하이 앙 라온아피!

지금까지 라온아피 6기 필리핀 팀 월간 소식지 '작은 도마뱀'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